

 <b>국토교통부</b>		<b>보 도 자 료</b>	
		<b>배포일시</b>	<b>2017. 7. 13.(목) / 총 5매(본문3, 붙임2)</b>
<b>담당 부서</b>	도시재생과	<b>담 당 자</b>	·과장 이홍수, 사무관 이수민, 주무관 박하나 ☎ (044) 201-3730, 4842, 4849
	도심재생과		·과장 김남균, 사무관 이종현, 주무관 경관수 ☎ (044) 201-4928, 4929, 4930
<b>보 도 일 시</b>		2017년 7월 13일(목) <b>14:30부터</b>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김현미 장관 “낡고 쇠퇴한 도시를 되살리는 것은 시대적 과제” 첫 도시재생 현장으로 천안 원도심 찾아·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 의지 밝혀 지역사회가 주도하고, 주민들의 삶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재생 되어야

-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7월 13일(목), 취임 후 첫 도시재생 현장 방문지로 천안 원도심 도시재생사업현장을 방문하여,
  -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,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다.
- 이번 천안 방문은 앞으로 본격화될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앞서,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.
  - 김 장관은 “도시는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경쟁력의 토대로, 도시재생은 인구감소와 저성장 추세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”라고 강조하면서,
  - “올해부터 제대로 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주민·지자체 등 지역 사회와 함께 낡고 쇠퇴한 도시를 활력 넘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.”고 의지를 보였다.

- 아울러, 천안시 관계자들에게 지자체와 주민들이 합심하여 천안 원도심이 도시재생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당부와 함께,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.

□ 이날 김현미 장관은 천안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하여,

- 지역에 방치된 건물들을 활용한 청년창업 및 문화·예술 공간을 둘러보았으며, 실제 재생사업으로 창업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이들을 돕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인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.

- 또한, 노후화된 구청사 부지\*에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이 복합된 원도심의 경제·문화거점을 조성하고 있는 현장도 살펴보았다.

\* 동남구청사(32년 준공) 부지에 지자체·공기업·민간 협력과 주택도시기금 지원(출자50억, 용자411억)을 바탕으로 구청사·어린이회관·지식산업센터·기숙사·주상복합 등 도입

□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도시재생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,

- 주거환경 정비, 상권 기능회복, 공동체 활성화, 경제 거점형성 등과 같이 지역의 여건과 필요에 맞는 재생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발굴·지원하겠다고 말했다.

□ 이어 청년 창업가, 상가 건물주와의 만남을 통해 “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람들의 삶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재생이 되어야” 하며,

- 재생사업에 따른 부동산·임대료 등의 상승으로 인해 기존 주민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다.

- 이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도시재생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사회로 다시 환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줄 것을 주문했다.

□ 또한, 앞으로의 도시재생 뉴딜 추진일정과 관련하여,

- 지난 7월 4일 출범한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, 올해 말까지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 이라면서,
- 구체적인 사업지 선정방법, 공모지침 등을 담은 공모(선정)계획 초안을 7월 중에 공개하고 지자체,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이종현 사무관(☎ 044-201-492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1. 추진경위**

- 천안역 및 동남구청 일원을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('14.4, 도시재생특위)
-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(민간투자사업) 계획을 추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('15.12, 도시재생특위)
-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'14~'17년(4년) 기간 중 마중물 사업비 (총 126억원) 일부를 국비 지원 중(국비 60억원, 지방비 66억원)

**2. 천안 도시재생지역 개요**

- (위치/면적) 천안시 동남구 중앙·문성동(천안역 일원) / 0.20km<sup>2</sup>
- (현황/비전) 신도심 개발로 인구유출 및 상권쇠퇴가 심화되는 천안 원도심에 복합문화특화공간을 조성하여 활성화 도모
- (사업내용) 22개 단위사업, 2,702억원 규모
  - 마중물사업(9개 126억원) : 원도심 종합지원센터 조성 등
  - 부처협업사업(3개 118억원) :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등
  - 지자체사업(8개 58억원) : 집창촌 정비사업 등
  - 민자사업(2개 2,400억원) : 구청사, 어린이회관, 업무·상업시설, 주택 등

**3. 사업별 주요내용 ⇨ 22개 단위사업 2,702억원 규모**

**1] 마중물 사업(9개, 126억원)**

- (청년클러스터 조성) 상권 내 청년창업 등 지원센터 및 공간조성
  - (원도심 종합지원센터조성) 청년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방치된 건물 (목욕탕) 매입·리모델링 ⇒ “도시 두드림 센터” 조성
  - (청년창업공간 조성) 창업공간 임대료, 창업활동비 등 지원(공모방식)

- (공간 재생지원) 빈공간 실태조사 및 활용 가능한 공간 발굴, 시범 사업 운영, 지하공간 개선 및 관련사업(특화상품 기획, 안전시설 설치 등) 추진
- (문화예술기반 조성) 청년층의 문화역량 강화 및 활동공간 조성, 문화부의 문화도시사업과 연계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
- (다문화거리 조성사업) 동선을 고려한 특화공간 조성, 다문화인을 위한 정보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함께하는 거점공간 조성

② 부처협업 사업(3개, 118억원)

- (문화특화지역 조성) 선도지역 내 문화거점 조성, 거리예술 활성화 및 소규모 문화 콘텐츠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 (문체부)
- (도활사업) 간판·보도정비, 미디어 갤러리 설치, 보행자 중심 가로시설물 정비 및 지역 특화거리 조성 등 (국토부)

③ 지자체사업(8개, 58억원) : 집창촌 정비, 주차장 조성, 주민역량강화 등

④ 민간투자사업(2개, 2,400억원) : 동남구청 복합개발(1,900억원) 등

- (개발컨셉) 노후 구청사(’32년 준공) 부지를 업무·상업·문화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여 원도심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(천안 Midtown)
- (도입기능) 구청사·어린이회관·기숙사·지식산업센터·주상복합 등
- (개발효과)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핵심기능(주거, 상업, 복지, 일자리)을 복합·연계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업을 통해 주변의 자생적 개발을 유도

< 현재 >



< 계획(안) >

